

내고장 일꾼



정종순 장흥군수는 2일 오후 4시 탐진강 일원에서 제11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마무리 정소 작업에 참여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2일 오전 11시 군청 군수실에서 열리는 한솔페이퍼텍 부지이전용역 보고회에 참석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2일 오전 10시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재능나눔활동 참여자 간담회에 참석한다.

화순 문해교육사 20명 수료식

화순군은 최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실에서 문해교육사 심화과정을 이수한 20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문해교육사 2급 과정은 현재 활동중인 문해교사의 요구를 바탕으로 문해교사 역할, 글쓰기 지도방법, 문해교육 방법 등 전문강사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은 실제 사례강의로 진행돼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문해교육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학습자는 총무과 평생교육팀(061-379-3352)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서호령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사 010-4601-5323
- 나주 010-5617-2605
- 010-3713-7458
- 합평 010-3773-2522
- 영광 010-8666-2882
- 무안 010-3621-8989
- 화순 010-3666-5888
- 장성 010-3666-1300
- 담양 010-4154-8277
- 장흥 010-3613-6114

‘여풍당당 장성’ 5급 이상 여성공무원 6명

6급 이상 38.76%, 전남 평균보다 10% 높아
주요 부서 여성 관리자 기용...남녀평등 인사

장성군 공무원 중 45.9%가 여성이며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에서는 38.76%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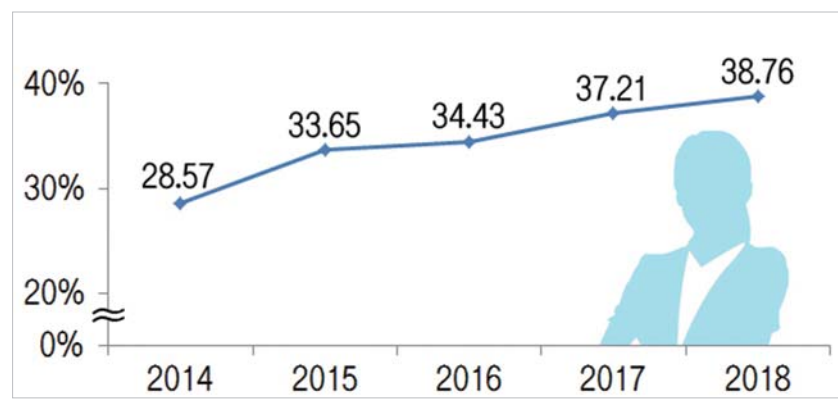
지난 1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체 장성군 공무원 566명(휴직자 제외) 중 여성은 45.9%인 260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017년)에 집계된 전남 지역 여성공무원 비율(34.9%)을 11%포인트 상회하는 것

은 물론 전국 여성공무원 비율(36.4%)을 10% 가까이 뛰어넘는 수치다.

장성군은 2013년 22.63%였던 6급 이상 여성 간부의 비율이 2014년 28.57%, 2015년 33.65%, 2016년 34.43%, 2017년 37.21%, 올해 38.76%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평균 29.1%보다 9.66%포인트 높고, 전국 평균(30.0%)보다



8.76%포인트 높은 수치다.

장성군의 5급(사무관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17.1%(35명 중 6명)로 나타났다.

전남 평균(8.7%)보다 8.4%포인트, 전국 평균(13.9%)보다 3.2%포

인트 높은 수치다.

2013년 35명 중 1명(2.9%)에 불과한 장성군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4년 3.3%(31명 중 1명), 2015년 6.1%(33명 중 2명), 2016년 8.6%

(35명 중 3명), 2017년 11.4%(35명

중 4명), 올해 17.1%(35명 중 6명)로 급증했다.

장성군은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급증해 상위 직급인 5급 이상으로 승진할 기회가 늘고 있는 까닭에 향후 여성 관리자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주요 부서에 과감하게 여성 인재를 기용하고 있는 만큼 양은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남녀평등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계장급인 6급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를 여성으로 채용한 만큼 사무관급의 50%를 여성이 차지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담양 혁신형 지방정부 구현한다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혁신과제 보고회

담양군은 최근 민선7기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구현을 위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 및 혁신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과단소별 추진 중인 군정 각 분야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상황 점검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군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 민선7기 군정의 핵심가치인 ‘자치’와 ‘혁신’을 군정에 녹여내기 위한 업무별 혁신과제를 발굴하면서 기존 관행을 깨는 창의적 발상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최형식 군수는 “각 부서의 존재 이

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으로 부서별 핵심 업무 발굴 및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인 사고로 경쟁력을 갖추고 체계로 묶고 정책으로 답하는 경영행정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민선 7기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국도 29호선 대체 우회도로 국도승격 ▲고서면 사거리~광주호간 4차선 확장 ▲숲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 ▲읍사무소 옆 청소년 센터 활용방안 ▲분야별 일자리 지원센터 통합관리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옹마루길 명품화 사업 ▲미래지향적인 벤처기업 육성 등을 논의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무안군은 최근 무안을 성남리 일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 현장 연시를 진행했다.

무안 드론 활용 첨단 농업기술 도입

드론 조종 전문 인력 양성·보급 사업 박차

무안군은 최근 무안을 성남리 일원에서 관내 농업인과 공직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농업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방제 현장 연시를 진행했다.

드론은 항공 촬영 뿐만 아니라 병해충 예찰, 들녘별 공동방제, 비료살포 등 활용 범위가 넓으며,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업용 드론

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797대가 보급됐으며, 무안군의 경우 농협, 영농법인 등에 12대를 보급해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은 앞으로 20대의 드론을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안전한 영농을 위해 조종자격증을 보유한 농업(법)인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드론 활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조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첨단농업을 실현하는데 있어 드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시설 원예 분야에도 ICT융복합(스마트팜)을 적극 도입해 미래지향적 농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무안연꽃축제로 무더위 탈출하세요

‘얼음나라 i-쿨존’ 운영...유명가수 공연 등 다채

제22회 무안연꽃축제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간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무안연꽃축제는 혹서기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무더위 탈출 시원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보다 확대된 60m의 대형 돔을 설치해 ‘얼음나라 i-쿨존’을 운영한다.

i-쿨존은 썩렁 열린 얼음을 주제로

겨울연출 포토존, 얼음놀이터, 얼음 조각 퍼포먼스, 이벤트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체험존, 판매존도 함께 운영돼 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또 외부도 연꽃얼음물길을 조성구설할 계획이다.

유명가수 초청공연도 풍성해져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박주현 기자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